

## 개구리-이 재앙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출애굽기 8:8)

첫째 재앙이 재앙 예고 후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것에 비하면 둘째 재앙은 바로의 왕궁에서 직접 경고하고 난 후에 실행되었다. 반면에 세번째 재앙은 첫째, 둘째와는 달리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일어났다. 이것은 때로 인간에게 사전 경고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임할 수 있다는 두려운 현실이 반영된다.

### 개구리 재앙

본문에서 개구리 재앙이 자세하고도 익살스럽게 묘사된다. 애굽 종교에서 개구리가 중요함을 제대로 알게되면 익살이 배후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애굽에서는 개구리를 다산의 능력 곧 신적인 생명력을 품고 있는 존재로 여겼다 (개구리 모습의 머리를 지닌 여신 '헤케트'는 숫양 모습의 머리를 지닌 '슈눔'과 짝을 이루는데, 슈눔은 애굽의 삶에 기본이 되는 나일 강물이 넘치게 하는 신으로 통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개구리들이 이제 권능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역질 나게 하는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 당시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신기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 24:24). 그들은 전에도 아론이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변하여 뱀이 되게 했고(7:11) 일주일 전에 피재앙이 있었을 때에도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처럼 물로 피가 되게 하였다(7: 22).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술법 능력으로 약간의 개구리를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술객들이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다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생겨나게 한 개구리를 더 생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애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땅에 물 붓듯 올라오는 개구리를 제거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생겨나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 이 재앙

'이' 재앙은 이전의 '피 재앙' 이나 '개구리 재앙' 이 사전에 바로에게 경고되었던 것과 달리 (7:15; 8:1-4) 아무런 경고없이 바로 시작되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애굽 지역의 사람과 생축을 괴롭혔다. '이'는 날개가 없는 곤충으로, 다른 동물에 기생하여 피를 빨아먹고 산다. 중동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현재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 잘 번식한다. 이 '이'는 사람의 몸 속에 기생하여 여러 무서운 질병의 매개체가 되었고 건강을 해치고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 절에서 '권능이니이다'에 해당하는 '에츠빠' 는 일차적으로 '손가락'(31: 8), 또는 '손' (사 59:3) 을 가리킨다.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힘이나 능력,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교한 도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나 '하나님의 계시' 를 상징한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들었다' 는 표현 (시 8:3)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 위에 십계명을 기록했다' 는 묘사 (31:18)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는 땅의 신으로서 하늘의 여신 누트와 합하여 주신 오시리스를 잉태한 겹 (Geb)을 상징한다.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는데, 바로의 술객들은 따라하지 못한다. 아론의 배후에는 더 강한 존재가 계시다는 사실을 술객들은 깨닫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 **생각하기**

세 번째 이 재앙에서 부터는 앞서의 첫째, 둘째의 피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들과 달리 애굽의 술객 (Magicians)들은 도저히 모방할 수 없었다. 이것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도 비록 보통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잠시 인간을 현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때에는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로의 마음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 강박하게 하였다 (14:17)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